



제목	루미의 타브리즈 샴스 시집에 나타난 가잘시와 수피사상 연구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외국문학연구소 (외국문학연구 38)
발행일	2010. 05.
저자	신은희
출판도시	서울
페이지수	225-251
ISBN 또는 ISSN	1226-444X

**내용 요약**

루미의 대표 시집 중 하나인 『타브리즈 샴스 시집 Divan-e Shams-e Tabrizi』은 『마스나위』와 함께 수피문학을 대표하는 가잘 시집이다. 가잘은 페르시아 문학과 아랍 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시문학의 한 형태로서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4행으로 된 서정시이다. 이 시는 각운을 이루는 2행시와 후렴구로 이루어지는데 각행은 동일한 운율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. 본 시집은 출판사에 따라 다양한 구성의 전집이 발행되었는데, 현재 중동문학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집의 원본에는 약 35000구의 시구가 수록되어 있다. 이 시집의 원본은 페르시아어로 창작되었는데, 부분적으로 아랍어와 그리스어가 혼용되어있다. 본 책에는 사랑과 영적 엑스타시를 주제로 한 가잘 시 외에도 송시, 찬미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.

루미가 이야기하는 사랑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는 바로 수피 탁발승 타브리즈 샴스인데, 그들은 신의 초월성과 사랑, 인간애, 신적 사랑, 신인합일의 영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바로 이 『타브리즈 샴스 시집』은 그들의 논의의 결과물이다.

저자는 본 논문에서 『타브리즈 샴스 시집』의 전승역사와 문학적 기법, 가잘시와 그 안에 녹아있는 수피사상을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. 특히 시와 수피 사상의 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비유물인 ‘태양’, ‘불’, ‘죽음’, ‘하나의 영’이 가잘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루미의 수피사상을 종교철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.